

필리조 존스의 브러쉬를 활용한 솔로 연주에 관한 연구 - 'Joe' s Delight를 중심으로 -

김윤태*, 조태선**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yuntaedrum@gmail.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Solo Performance Using Philo Jones' Brush - Focus on Joe's Delight -

Yun-Tae Kim*, Tae-Seon Cho**
*Dept. of Applied Music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재즈드러머 필리 조 존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드밥 드러머로 꼽힌다. 당대 여러 재즈뮤지션들의 사이드맨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본인이 리더로 제작한 여러 솔로앨범들도 모두 재즈사의 명반으로 인정받고 있다. 필리 조 존스는 음악적으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최고의 재즈 드러머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뛰어난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필리 조 존스는 브러쉬를 활용한 연주를 많이 남겼는데 그가 남긴 1950년대 마일즈 데이비스 쿼텟과의 작업은 재즈 역사상 드럼연주의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의 연주는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좋은 분석자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곡 'Joe' s Delight'를 중심으로 브러쉬 연주에서 필히 다루어야 할 플러터(Flutter)주법, 스위프(Sweep)주법, 싱글스트로크와 더블스트로크 등 각종 연주방법이 솔로연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서 론

재즈드럼에 대해 논할때 빼놓을수 없는 연주자가 몇 명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필리 조 존스는 여타 다른 드러머와 비교해서도 후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녹음에 참여한 앨범의 수와 함께 작업한 뮤지션들의 명성 만으로도 그 이유를 대신할수 있다. 대표적으로 1950년대 마일즈 데이비스가 발매한 4장의 앨범 'Cookin', 'Relaxin', 'Workin', 'Steamin' 등은 재즈드럼 연주의 명반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그는 많은 녹음이나 공연에서 브러쉬를 사용한 음반들을 많이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본 곡 'Joe's Delight'는 브러쉬 주법의 많은 요소를 담고 있다. 1959년 리버사이드 레코드사에서 발매된 앨범 'Showcase'의 수록곡이며 그가 리더로 작업한 솔로작품에 실려있는 곡이기도 하다. 편성으로는 피아노, 베이스, 드럼의 트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트럼펫, 트럼본, 테너색소폰, 바리톤 색소폰의 혼색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록된 곡들 대부분이 다른 연주자의 곡을 가져온 경우가 많은데 이 곡은 그가 직접 작곡, 편곡한 곡이기도 해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브러쉬를 이용하여 솔로를 할 때 사용된 방법들을 분석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봄으로서 후대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본 론

필리 조 존스의 리더앨범 'Showcase'는 밴드리더의 필리와 드러머 필리의 두가지 모두를 담고 있는 앨범이다. 다른 뮤지션의 보조연주자가 아니기에 드러머로서 본인이 담고 싶은것들을 모두 담고 있다. 당시 하드밥 시대를 라지(Large)편성의 브라스 편곡으로 잘 표현하고 있으며 각곡에서 뛰어난 테크닉으로 화려한 솔로를 담아냈다. 그 중에서도 곡 'Joe's Delight'를 통해 브러쉬 솔로를 들을수 있다.

또한 드럼스틱의 종류에는 흔히 잘알려진 나무 스틱과 팀파니용 말렛(Mallet), 로즈스틱(Rods)등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이 있다. 각 스틱의 종류에는 두께나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달라진다. 예를들어 부드럽고 몽통한 소리를 필요로 할때는 팀파니 말렛을 사용하고 그것보다는 좀 크지만 나무스틱보다는 작은 소리를 얻고자 할때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식이다. 그리고 브러쉬에도 또 세부적으로 종류를 나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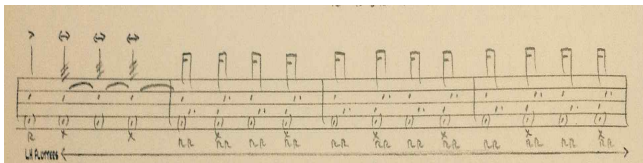
된다. 작은소리에서는 와이어(Wire)를 사용한 것을 선택하고 조금더 큰볼륨에서는 나일론(Nylon) 브러쉬, 조금 더큰 소리에서는 로즈스틱을 선택하는 식으로 구분된다. 브러쉬의 종류에서 일반적인 것은 와이어 브러쉬이다.

그의 브러쉬 솔로에서 사용되어진 싱글스트로크(Single Stroke), 더블스트로크(Double Stroke), 파라디들(Paradiddle), 스위프(Sweep), 플러터(Flutter)주법 등이 솔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해 보겠다.

2.1 플러터 주법

플러터의 연주방법은 스네어 헤드면에 브러쉬를 빠른 속도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빠르게 문지르다 보면 마치 벌새가 날개짓을 할 때 내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난다.

양손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양손중 한손으로만 사용된다. 예를들어 왼손으로 이 주법을 사용하면 오른손으로는 다른 드럼들을 사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오른손으로 플러터를 구사하고 왼손으로 다른종류의 리듬을 만들어 낼수도 있다. 전체적인 사운드에서 효과음을 낼 때 많이 쓰이는 연주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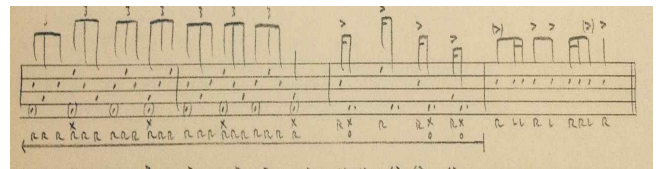
[그림 1] Flutter 주법

그림1의 첫마디에 그려진 화살표는 플러터를 나타내는 표기법이다. 다른것에 비해 브러쉬는 특별히 공통으로 쓰는 악보 표기법이 있지 않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화살표로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직접써서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의 1-4마디 동안 왼손으로 플러터를 하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스네어 드럼과 플로어탐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2-4마디까지 16분음표 오른손 더블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손의 조합이 입체적인 사운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스네어드럼의 위치가 중요한데 각 박자에서 첫 번째에 사용하기도 하고 16분음표의 두 번째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단순한 방법이지만 리듬의 완급을 표현할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베이스 드럼은 페더링(Feathering)주법을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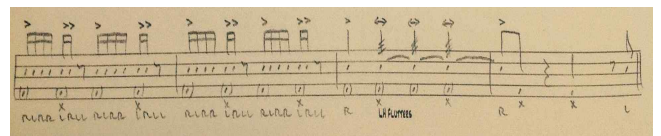
사하고 있다. 이 주법은 베이스드럼을 깃털처럼 가볍게 연주하는 것이다. 페더링을 하는것과 하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콘트라베이스와 베이스드럼이 유니즌(Unison)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스윙에서도 마찬가지로 콘트라베이스의 워킹(Walking)주법에 맞춰 같은 리듬으로 베이스드럼을 사용하게 된다. 대신 소리의 크기를 아주 작게 내는 것인데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연주한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드럼연주자가 앙상블내에서 이 주법을 구사의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균형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스틱을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브러쉬를 사용할때에도 베이스드럼 페더링 주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그림 2] Flutter 주법 2

그림1의 플러터를 주법을 이어서 그림2에서도 연결되고 있다. 위 그림의 첫마디에서는 스네어드럼-플로어탐-스네어드럼으로 진행되다가 랙탐-스네어드럼-플로어탐으로 이어지며 오른손 싱글스트로크가 연주되고 있다. 미디엄 템포의 곡에서만 가능한 테크닉이다. 세가지의 드럼통을 한손만으로 구사해 냄으로서 박진감 넘치며 더 힘있는 진행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리듬은 두마디 동안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필리의 브러쉬를 사용한 기술에서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후 세 번째 마디에서 그는 다시 그림1의 처음부분에 등장하는 리듬을 선택하는데 다른점은 스네어드럼과 랙탐, 플로어탐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 다채로운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2.2 브러쉬의 스트로크 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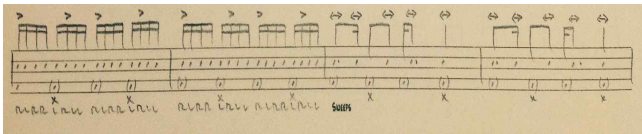
[그림 3] 파라디들

그림3의 처음부분에는 16분음표를 활용한 파라디들 액센트 패턴을 구사한다. 브러쉬의 싱글스트로크와 더블스트로크를 응용한 파라디들은 스틱과는 조금 다르

다. 브리쉬는 바운딩을 얻기가 힘든 특성이 있다. 그래서 손가락을 쓰지 않고 손목만을 이용해서 명확한 소리를 얻어낸다. 특히 심벌계열의 악기들은 그 무게나 크기 때문에 더 선명한 소리를 내기 힘들다. 따라서 손목의 사용으로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 할 수가 있다.

더블스트로크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일반 스트릭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할수 있다. 약간 비스듬히 사선을 만들며 내려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브러쉬 특유의 부드러운 사운드를 얻을수 있다. 이것은 파라디들과 같이 싱글과 더블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적용시켜 사용할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보다 더 안정되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표현하게 된다.

2.3 스왑주법



[그림4] 스왑주법

기본적으로 브러쉬는 스네어 드럼의 헤드면을 문질러서 나오는 소리로 비트를 만들어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왼손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좌우로 180도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는 360도 원을 그리며 리듬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있다. 이를 통해서 재즈는 물론이고 라틴, 펑크, 팝, 락음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음악스타일에 적용이 가능하다.

180도 패턴의 경우 스네어드럼 헤드의 왼쪽에 비트 1,3을 지정하고 오른쪽 끝에 비트 2,4를 정해 놓는다. 템포에 따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끝 부분에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스윕사운드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360도 패턴의 경우 원(Circle)을 그리며 비트를 만들어 낸다. 사람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원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시계반대방향으로 원을 그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사운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으며 브러쉬주법을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그림4에서 나오는 스윙주법은 짧은 리듬에서 사용되는 한 형태이다. 3,4마디에서 16분음표를 3개씩 묶는 그루핑을 이용하여 구사하고 있다.

템포에 따라서 한손으로나 두손을 번갈아 사용하여 리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림에서 스네어 드럼의 노테이션(notation)에 리듬으로 표기가 되어있지만 음

표의 위에 화살표를 사용함으로써 스윙주법으로 연주하게 된다. 그림의 1,2번째 마디가 같은 프레이즈의 반복이고 3,4번째 마디가 같은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흥연주의 표현요소중 하나인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 앞과 뒷부분의 대비를 제시하고 있다. 앞 1,2마디는 스트로크를 이용한 파라디를 액센트를 구사하고 뒤 3,4마디에서는 스윙을 사용하여 대비를 표현하고 있다.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필리 조 존스가 솔로에서 어떻게 브리쉬를 활용하는지 알아보았다. 플러터 주법이나 스윙주법 그리고 다양한 스트로크를 응용하여 입체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볼수 있다. 특히 그가 사용하는 플러터 주법은 매우 간결하고 깔끔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플러터 연주와 스윙을 활용하여 드림 솔로를 구성해 나가는 부분은 후대의 연주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시한다.

드럼의 역사에서 볼 때 브러쉬가 등장한 시기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또한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브러쉬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브러쉬의 사용법이나 교육법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마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처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와 같이 앞서간 음악가들이 뛰어난 테크닉을 바탕으로 남긴 많은 녹음된 음악들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다.

참고문헌

- [1] Philly Joe Jones. Show Case. Riverside. 1959
- [2] https://en.wikipedia.org/wiki/Philly_Joe_Jones
- [3] [https://en.wikipedia.org/wiki/Showcase_\(Philly_Joe_Jones_album\)](https://en.wikipedia.org/wiki/Showcase_(Philly_Joe_Jones_album))